

# 남북정상, 최소 두차례 회담 예정 긴장완화 군사합의도 가능

### 임종석 '18~20일 평양회담' 일정·의제 브리핑... "18일 오찬 후 첫 회담, 19일에도 회담"

### 남북관계개선·비핵화·군사긴장완화 3대의제... "19일 회담 후 합의발표 공동회견 기대"

### 김정은 순안공항서 문대통령 영접 예상... 예술공연 관람과 환영·환송만찬 등 분주한 일정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8~20일 사흘간 진행되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최소 2차례 정상 간 회담을 열고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 군사긴장완화를 3대 의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내일 오전 8시40분 성남공항을 출발해 오전 10시에 평양에 도착할 예정이며, 18일 오찬 후 첫 정상회담을 한다"고 발표했다.

임 실장은 "남북 정상이 19일에도 2일차 회담을 열고 언론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며, 긴장해소와 무력충돌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군사부문 합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첫날 일정에 대해 "성남공항에서 별도 행사는 계획돼 있지 않고 오전 10시에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면 공항에서 공식 환영행사가 있을 것"이라며 "오찬



남북정상회담 이동 경로

후에 첫번째 남북정상회담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첫날 회담 종료 후 늦은 오후에 환영 예술공연 관람 후 환영 만찬을 가진다.

임 실장은 둘째날 일정에 대해서는 "첫날에 이어 추가 정상회담이 진행된다"며

"이때까지 회담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아마도 오전 회담 후에 합의 내용을 발표하는 공동기자회견이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면서 "이때 그간 남북 간

에 논의해 온 긴장해소와 무력충돌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군사부문 합의도 가능

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일부 조항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임 실장은 "경우에 따라서는 오후에도 회담이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녁에는 환송 만찬이 계획돼 있다.

이어 방북 3일째이자 마지막날인 20일 문 대통령은 공항에서 환송행사를 마치고 오전에 서울로 향할 예정이라고 임 실장은 전했다. 임 실장은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 남북관계 개선·발전 ▲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의 증진·촉진 ▲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협 종식 등 세 가지를 제시했으며, 이산가족 문제도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먼저 남북관계 의제와 관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미 합의된 판문점선언이다. 판문점선언 이행상황을 남북 정상이 확인하고 그간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비핵화 의제에 대해선 "북미가 새로운 평화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를 조속하게 재개해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가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실장은 끝으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포괄적 합의를 추진 중으로, 군사 충돌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실질적 평화정착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이산가족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별도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광주시, 부동산 투기 불법세력 단속활동 확대

### 경찰청·국세청·관련 단체 참여 '합동단속반' 구성·운영

광주시가 부동산 투기 불법세력 단속활동을 확대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8·27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불법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추가로 마련했다.

특히 이번에는 경찰청·국세청·관련 단체 등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합동단속반을 운영, 지도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 홍보역량 강화, 제도개선 등 모두 3개 분야에 대한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지도단속분야는 합동단속반이 기획부동산, 허위 실거래가 신고 등에 대한 정보 수집·집중단속 등을 통해 불법 행위자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형사처분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단속지역은 기존 집중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남구·광산구에서 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된다.

인터넷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확대해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할 계획이다.

홍보역량 강화 분야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잘 모르는 시민이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

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캠페인, 현수막 게시 등 대시민 홍보활동을 한다.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전담팀 신설을 추진하고 담당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등도 강화한다.

제도개선 분야에서 부동산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는 '실거래신고제' 개선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주택거래허가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 등을 정부에 건의한다.

'아파트 가격 급등을 예방하기 위해 대한 정보 수집·집중단속 등을 통해 불법 행위자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형사처분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단속지역은 기존 집중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남구·광산구에서 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된다. 인터넷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확대해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할 계획이다. 홍보역량 강화 분야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잘 모르는 시민이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공동으로 캠페인, 현수막 게시 등 대시민 홍보활동을 한다.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 전담팀 신설을 추진하고 담당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등도 강화한다. 제도개선 분야에서 부동산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는 '실거래신고제' 개선을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주택거래허가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법 개정 등을 정부에 건의한다. '아파트 가격 급등을 예방하기 위해 대한 정보 수집·집중단속 등을 통해 불법 행위자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형사처분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단속지역은 기존 집중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남구·광산구에서 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된다. 인터넷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확대해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할 계획이다. 홍보역량 강화 분야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잘 모르는 시민이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

/정승현 기자 jsh9668@

## '2018 세계한인차세대대회' 개막... 24개국 80명 참가

### 한민족 정체성 함양하며 네트워크 활성화 모색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이 주최하는 '2018 세계한인차세대대회'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막을 올렸다.

올해로 21회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24개국에서 80여 명의 한인 차세대 리더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스무 살의 열정으로 세상을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21일까지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며 정체성을 함양하고 교류활동을 통해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에 나선다.

개회식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 국내 주요 인사 등이 참석했다.

강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중요한 시기에 모국 방문에 참여한 것을 환영하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향한 여정에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부탁한다"며 "대회 기간 서로의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교류활동을 벌여 미래의 꿈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정치·경제·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차세대 리더들 덕분에 거주국에서 한인의 위상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코리아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이어나가는 주인공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주요 인사들과 차세대 리더들이 함께 대형 한반도 지도에 무궁화를 꽂으며 모국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반도 정세 변화와 평화 전망"이라는 기조강연에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연이은 개최로 한반도 평화 정착의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대회 기간에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김태엽 기자 esaca@

## 2018 세계인권도시포럼 D-30

### 10월 18일 개막

오는 10월 광주에서 개막하는 '2018 세계인권도시포럼'이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수의 참가자로 위상이 높아진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광주시교육청과 공동 주최로 오는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우리는 누구와 살고 있는가?'

다양성, 포용 그리고 평화'라는 주제로 '2018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한다. 올해 8회째인 행사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올해 처음으로 아시아 지역 개발도상국 관계자 15명이 함께 참가해 아시아의 인권과 평화 증진을 논의한다.

포럼 주요 참석자는 국제사회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케이트 길모어 부대표, 스웨덴의 모르텐 사예르 라울발렌베리인권 연구소 등이 있다. /정승현 기자 jsh9668@

## 친환경 작두콩 재배 강진 귀농 부부... '부농의 꿈 현실로'

### 귀농 4년 만에 역대매출 기대... 30여농가와 친환경 작목반 구성

전남 강진군으로 귀농한 송용기(54), 홍여신(47) 부부가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한 작두콩이 화제다.

2015년 8월 강진군 군동면 석교마을로 온 이 부부는 '강진도깨비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부부는 작두콩을 썰어 말린 상태로 밀봉하면 저장성이 좋다는 사실에 착안,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작두콩을 재배했다.

지난해에는 친환경 작두콩 12t을 성공적으로 수확해 온라인 쇼핑몰과 인근 로컬푸드 판매장 및 초록민을 직거래지원센터, 소비자 직거래로 약 8천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1억원 이상 매출을 예상한다.

부부는 강진 30여 농가와 함께 친환경



역대 부농의 꿈이룬 송용기, 홍여신 부부

작두콩 작목반을 꾸려 직접 1대1 맞춤형 현장 재배기술 교육도 하고 있다.

이들 농가와 작두콩 1만2천여 평 계약 재배를 하며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도 앞장서고 있다.

홍여신 대표는 17일 "귀농한 지 4년 만

에 벌써 역대 부농의 꿈이 코앞에 다가온 것이 믿기지 않는다"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작두콩이 강진을 대표할 수 있는 소득 작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전원빈 기자 wonbin@

나주혁신도시  
빛가람 중흥메가티움

상가 125호  
상가 201호

전용면적 415.58㎡(125.72평)  
(보증금 5천만원, 월임대료 300만원)

☎ 010-4057-7999

서구 치평동 중흥스카이31 상가 임대

1층 101호 코너자리  
전용면적 357.72㎡(108.2평)  
보증금 2억원, 월임대료 1천 100만원

108호 전용면적 84.04㎡(25.4평)  
보증금 5천만원, 월임대료 250만원

☎ 062)676-0004

"함께 일하는 세상, 우리가 있습니다."

(전액국비) 장애인직업훈련생모집!!  
(광주파견교육장)

훈련분야  
- 정보분야(정보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등)  
- 디자인분야(그래픽디자인, 광고출판디자인, 웹디자인 등)  
\* 자격증 대비반 운영

입학안내  
- 입학자격: 구직등록 장애인 / - 모집시기: 연중 수시

전형방법  
- 입학 선발평가를 통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 취업성공패키지

단계	내용	수당
1	상담, 직업능력평가, 구인역량강화프로그램	150,000원~250,000원
2	직업훈련	월 최대 284,000원
3	집중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최대 150만원 (취업 후 근속개월 수에 따라 차등지급)

입학문의 Tel. 062)371-7711 (광주파견교육장)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89-4 (코스모스 빌딩 3층)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 광주파견교육장